

뷰티산업 주간 동향 보고

발행·작성: 뷰티산업연구소

조사 기간: 2026 년 8 월 17 일 ~ 8 월 23 일

대상 분야: 미용사·미용서비스산업, 미용교육·자격·직업훈련, 정책·법령·제도, 해외 미용 동향

① 주간 요약

이번 주 일본에서는 미용업계 채용임금과 무단·직전취소 손실이 동시에 주요 경영 이슈로 부각됐습니다. 도쿄의 미용업계 채용임금 조사에서는 정규직 미용사의 모집 월급이 최저임금 환산액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미용실·네일·아이래시·에스테틱 등의 취소료 회수 의뢰는 최근 3 년간 크게 증가해 인력 확보와 예약관리 모두가 살롱 경영의 핵심 과제로 확인됐습니다.

해외에서는 일본계 헤어커트 브랜드가 홍콩에서 교육된 인력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재확대했고, 영국에서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외부 뷰티 도제과정의 시작됐습니다. 중국에서는 미용·미발점을 포함한 화장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품질안전과 가격표시 특별점검이 실시됐으며, 호주·뉴질랜드에서는 살롱·클리닉과 전문인력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산업 시상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② 핵심 뉴스

1. 일본 도쿄 미용업계 채용임금, 정규직 미용사 월 약 26 만 엔

일본 미용업계 전문 구인사이트 「美プロ」가 7 월 도쿄 지역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 미용사의 모집 월급은 약 26 만 엔으로 최저임금 환산 월급보다 약 4 만 4 천 엔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아르바이트·파트직의 시급 차이는 직종에 따라 129~290 엔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분석 미용 인력난이 지속되는 시장에서는 최저임금 준수만으로 채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내 살롱도 초임, 교육기간, 승급체계, 성과보상을 함께 설계해 채용공고 단계에서 경력경로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발표일 2026 년 8 월 19 일

출처 Zenken·美プロ

원문 링크 <https://prt-times.jp/main/html/rd/p/000000709.000006978.html>

2. 일본 미용살롱 무단·직전취소료 회수 의뢰, 3 년간 약 4 배 증가

변호사가 운영하는 취소료 회수 서비스 「노캔닷컴 미용판」이 미용실·네일·아이래시·에스테틱 등에서 접수된 약 6 만 5 천 건의 취소료 의뢰 데이터를 집계했습니다. 연간 의뢰는 2022 년 5,045 건에서 2025 년 1 만 9,548 건으로 약 4 배 증가했으며, 2026 년 8 월 현재 누적 취소 의뢰도 6 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분석 예약 기반 미용서비스에서 노쇼는 단순한 고객관리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와 공간의 유희시간을 발생시키는 직접적 경영손실입니다. 예약금, 취소규정 사전고지, 자동 알림, 반복 노쇼 고객 관리 등 예방 중심의 운영체계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발표일 2026 년 8 월 21 일

출처 노캔닷컴 미용판

원문 링크 <https://beauty.noshow.life/>

3. 일본 QB HOUSE, 홍콩에 프리미엄 헤어커트 서비스 재진출

QB HOUSE 를 운영하는 큐비넷홀딩스는 8 월 20 일 홍콩 이스트침사추이역에 「QB PREMIUM」을 다시 열었습니다. 회사는 홍콩에서 60 개 이상의 QB HOUSE 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커트스쿨을 통해 현지 인력을 교육한 뒤 기술력과接客역량이 높은 인력을 프리미엄

매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분석 해외 진출에서 브랜드 확장만큼 중요한 것은 현지 인력을 일정한 기술·서비스 수준으로 양성하는 내부 교육시스템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K-뷰티 서비스의 해외 확장도 교육과 평가, 승급, 매장 운영표준을 패키지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발표일 2026년 8월 20일

출처 QB Net Holdings

원문 링크 <https://www.qbnet.jp/topics/>

4. 영국 Lush, 생활임금 지급하는 외부 뷰티 도제과정 시작

Lush는 외부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첫 뷰티테라피 도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는 런던 생활임금을 받으면서 국가가 인정하는 Level 2·3 Beauty Therapist 자격과 연계된 현장교육을 받고, 과정 이후 정규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를 갖습니다.

분석 도제훈련의 참여율을 높이려면 단순히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훈련기간의 임금과 자격취득, 취업경로를 연결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국내 미용 채용연계형 교육도 교육-현장실습-평가-채용을 하나의 경력경로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발표일 2026년 8월 18일

출처 BeautyMatter

원문 링크 <https://beautymatter.com/articles/can-higher-paid-apprenticeships-solve-beautys-talent-gap>

5. 중국 간쑤성, 미용·미발점 화장품 품질·가격 특별점검

중국 간쑤성 장예시 린쩌현 시장감독관리 당국은 미용실·미발점 등을 포함한 16개 화장품 취급·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품질안전과 가격질서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입고검수·증빙관리, 제품 등록정보·유통기한·표시사항, 세정·염색·펌 관련 제품, 명확한 가격표시 등을 중점 확인했으며 13건의 문제를 시정하고 화장품 위반사건 1건을 처리했습니다.

분석 미용서비스 현장에서 사용하는 화장품도 단순 소모품이 아니라 규제 대상 제품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내 살롱도 거래명세·입고 기록, 제품 표시와 사용기한, 가격고지, 염색·펌제 보관·사용 절차를 내부 관리기준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발표일 2026년 8월 19일

출처 중국질량신문망·간쑤성 시장감독관리국

원문 링크 <https://www.eeo.com.cn/2026/0819/1004050.shtml>

6. 호주·뉴질랜드 Beauty Industry Awards, 살롱·클리닉·전문인력 평가

호주·뉴질랜드의 2026 ANZ Beauty Industry Awards 결과가 8월 19일 발표됐습니다. 규모별 Spa/Salon/Clinic of the Year와 Dermal Therapist of the Year 등 서비스 사업장과 전문인력을 구분해 시상하며, 업계의 경영·서비스·전문성 성과를 평가하는 구조로 운영됐습니다.

분석 서비스산업의 전문성을 확산하려면 개인 기술경연뿐 아니라 살롱 운영, 고객서비스, 전문직 역량을 함께 평가하는 산업 차원의 인정 체계도 중요합니다. 국내 미용산업에서도 기술숙련과 경영·서비스 품질을 연결한 평가모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도·발표일 2026년 8월 19일

출처 Mocha Group·ANZ Beauty Industry Awards

원문 링크 <https://mochagroup.com.au/2026-abia-winners-announced-at-gala-ceremony/>

③ 분야별 동향

가. 미용사·미용서비스산업

일본에서는 채용임금 경쟁과 무단·직전취소 손실이 살롱 경영의 주요 과제로 나타났으며, QB HOUSE는 자체 교육을 받은 현지 인력을 기반으로 홍콩에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호주·뉴질랜드에서는 살롱·클리닉과 전문인력을 함께 평가하는 산업 시상체계가 운영됐습니다.

나. 미용교육·자격·직업훈련 및 정책·제도

영국 Lush는 생활임금과 Level 2·3 자격을 결합한 뷰티테라피 도제과정을 운영해 입직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미용·미발점의 화장품 입고검수, 등록정보, 표시사항, 가격표시 등을 함께 점검하면서 살롱 현장의 제품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했습니다.

④ 종합 시사점

1. 미용업계의 채용 경쟁력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보다 초임 수준, 교육기간, 승급체계, 성과보상을 포함한 경력경로의 명확성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큼니다.
2. 노쇼와 직전취소는 예약형 미용서비스의 수익성을 직접 훼손하므로 예약금, 취소규정 사전고지, 자동 알림과 같은 예방체계를 운영표준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일본계 헤어서비스의 홍콩 확장 사례는 해외 진출 시 현지 인력양성 시스템이 서비스 품질과 브랜드 확장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생활임금과 자격취득, 취업경로를 결합한 영국 도제모델은 미용분야 청년인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뿐 아니라 훈련 중 생계와 채용까지 함께 설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5. 중국의 미용·미발점 화장품 특별점검은 살롱에서 사용하는 염색·펌·세정 제품도 입고기록, 표시사항, 사용기한, 가격고지를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6. 기술경연뿐 아니라 살롱·클리닉 경영과 전문인력을 함께 평가하는 해외 산업 시상체계는 국내 미용서비스의 품질인증과 우수사례 확산 모델을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⑤ 출처

- Zenken·美プロ (2026년 8월 19일), 도쿄 미용업계 채용임금 조사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709.000006978.html>
- 노캔닷컴 미용판 (2026년 8월 21일), 미용살롱 취소료 의뢰 실태조사
<https://beauty.noshow.life/>
- QB Net Holdings (2026년 8월 20일), QB PREMIUM 홍콩 재진출
<https://www.qbnet.jp/topics/>
- BeautyMatter (2026년 8월 18일), Lush 외부 뷰티 도제과정과 생활임금
<https://beautymatter.com/articles/can-higher-paid-apprenticeships-solve-beautys-talent-gap>
- 중국질량신문망·간쑤성 시장감독관리국 (2026년 8월 19일), 미용·미발점 포함 화장품 품질·가격 특별점검
<https://www.eeo.com.cn/2026/0819/1004050.shtml>
- Mocha Group (2026년 8월 19일), 2026 ANZ Beauty Industry Awards 결과
<https://mochagroup.com.au/2026-abia-winners-announced-at-gala-ceremony/>

⑥ 배포 및 저작권 안내

본 보고서는 수신을 희망하는 미용 분야 종사자에게 비영리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무료 배포하는 자료입니다. 공개된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의 주요 사실을 간략히 재서술하고, 뷰티산업연구소의 독자적 분석을 덧붙여 작성하였습니다. 기사 원문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와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상세 내용은 제시된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기사 요약 및 출처 정보는 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